

독자권익위원 칼럼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문학박사



연말연시를 지나 설날과 대보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장 자주 나누는 인사말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일 것이다. 중국에서는 “쑤니엔파오러(新年快?)”, 일본에서는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라 말한다. 언어는 달라도, 그 속뜻은 다르지 않다. 한 해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곧 ‘복’을 기원하는 인사다.

서양에서는 연말이 되면 “Happy New Year!”라는 인사를 주고받고, 때로는 “Are you happy?” “Am I happy?”라며 ‘행복’을 직접 묻는다. 인도 사람들은 만남 때마다 “오늘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주문처럼 되뇌며 산다고 한다. 문화와 언어는 달라도, 인간이 바라는 것은 결국 ‘행복’ 하나가 아닐까 싶다.

새해를 맞으며, 어느덧 나는 고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나는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섣불리 확신에 찬 대답이 나오지는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생각은 점점 분명해진다. 행복이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삶에 대해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충분한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더 많은 것을 갈망한다. 인도의 한 성자는 “삶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은, 내가 이미 행복하다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는 것”이라 했다. 동양의 현인은 “인간의 생명은 유한한데 욕심은 무한하다. 유한한

나는 행복한가?

생명으로 무한한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이 곧 불행이다.”라고 일깨웠다. 그래서 예로부터 “나이를 먹을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리”고 했는지도 모른다. 평생 모은 재산은 다 쓰지 못하고, 떠날 때 가져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노예의 신분에서 사상가가 된 인물이다. 그는 “지금 당신이 누리는 것들은 세상이 잠시 허락한 것이다. 그러니 그것들이 곁에 있는 동안 감사히 여기라”고 했다. 또 이런 말도 남겼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행복과 불행은 결국 스스로가 선택한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 성자 라마크리슈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집과 돈과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미 행복하다면, 그것들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이렇게 말해볼 필요도 있다. “나는 행복하다.”

영어에 ‘해피(happy)’가 있다면, 우리에선 ‘행복’이라는 말이 있다. 한자로는 (행)幸, (복)福, (길)吉, (자)祉 등 여러 글자가 있지만, 유독 우리 민족이 좋아해 온 말은 ‘복(福)’과 ‘덕(德, 惠)’일 것이다. 사전은 복을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그로부터 얻는 행복’이라 정의한다. 그래서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즐겨 썼고, 집안에 복조리를 걸고, 복돈을 나누며, 사람 이름에도 ‘복’ 자를 즐겨 넣었다.

그렇다면 덕은 무엇인가. 덕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마음과 인격”이다. 큰 덕(德)자는 ‘곧을 직(直)’과 ‘마음 심(心)’이 합쳐진 글자다. 곧은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고, 베풀 줄 아는 태도가 곧 덕이다. 그래서 우리는 “덕분이다”, “덕을 쌓아라”, “인덕이 있다”와 같은 말을 소중히 여겨왔다.

공자 사상의 핵심은 ‘덕’이다. 덕은 인간다움의 중심이며, 관계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뿌리다. 공자는 “군자는 덕을 숭상하고, 소인은 이익을 좇는다”고 했다. 이 말은 오늘날의 정치·경제·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구다.

IT와 AI, 글로벌 시대라 해도 인간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 경쟁이 아니라 관계, 속도가 아니라 신뢰가 결국 모든 것을 좌우한다. 리더십 또한 마찬가지다. 경영 전략이나 기술적 우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품는 힘, 곧 덕에서 비롯된다.

고대 그리스는 정의·지혜·용기·절제를 네 가지 기본 덕목으로 삼았다. 시대와 문명이 달라도, 인간이 지켜야 할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덕이다.

예부터 “덕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고 했다. 적덕지가 필요여경(積德之家 必有餘慶)이다. 개인은 물론 가정과 기업, 단체와 조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고, 수성보다 경장이 어렵다는 말이 있다. 특히 세대를 거처며 이어지는 조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덕의 축적이 있을 때 비로소 오래간다.

복을 바라면서 복을 짓지 않으면, 복은 오지 않는다. 공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했다. 덕은 반드시 사람을 불러온다.

복 또한 마찬가지다. 복을 짓고, 복을 나누는 사람에게 복은 자연스레 돌아온다. 법륜 스님은 “복을 짓되, 복 받 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다. 복은 계산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농사짓듯, 밥을 짓듯,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내는 삶 속에서 복은 저절로 자아진다. 그래서 이제야 이런 인사를 건네고 싶다. “복 많이 받으세요” 대신,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그 인사가 곧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새해, 다시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행복한가. 그리고 오늘도, 나는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특별기고

최영주

전남도 관광체육국장



행정통합이 여는 ‘광역 관광시대’ 일상 달라진다

바·체험이 동반되는 고부가가치 관광 구조로 이어진다.

관광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브랜드의 힘이다. 광주와 전남이 따로 홍보할 때보다 통합 브랜드로 해외 시장에 나설 경우 인지도와 신뢰도는 훨씬 커진다. ‘민주·예술·미식의 도시 광주’와 ‘섬·해양·치유의 전남’을 아우르는 광역 브랜드는 한국 남부권을 대표하는 관광 이미지로 자리 잡아 국제 관광박람회와 해외 마케팅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대형 국제행사와 관광산업의 시너지도 커진다. 국제행사는 행사 당일만 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행사 전후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이 핵심이다. 전남의 섬·해양·웰니스 관광 자원과 광주의 문화·예술·MICE 인프라가 결합하면 행사 효과는 지역 전반으로 확산된다. 광주 도심 관광과 전남의 섬·해양·치유 관광이 연계되면서 방문객 체류 기간이 늘고, 이는 지역 내 소비 확대로 이어진다.

교통과 관광 인프라 측면에서도 통합의 효과는 크다. 공항·항만·철도·도로·관광안내·스마트관광 플랫폼이 광역 단위로 연계되면 관광객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광주공항, 무안국제공항, 여수·목포 항만, KTX 노선이 하나의 관광 교통망으로 연결될 경우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는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관광 흐름을 보다 균형 있게 만든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면 관광 개발사업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중앙정부와의 복잡한 사전협의 절차가 줄어들어 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조성할 수 있다. 도민이 이용할 문화·관광

시설과 휴식 공간이 확대되고,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관광은 단순한 여행산업이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 문화향유 기회를 함께 움직이는 생활 산업이다. 관광정책이 바뀌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여행객의 동선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이다. 교통정보와 관광안내, 예약 시스템이 통합되면 이동은 더 쉬워지고 정보 접근성도 개선된다. 가족 나들이나 동호회 여행, 소규모 체험 활동이 훨씬 수월해진다.

지역경제 변화는 도민이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부분이다.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축제와 대규모 행사를 연계 개최하면 광주 도시문화 관광과 전남 섬·바다·농산어촌 관광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지역색 있는 음식과 볼거리가 소비로 이어지며 관광지와 골목상권,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진다.

문화향유 기회도 넓어진다. 광주의 공연·전시·국제행사와 전남의 자연·축제·체험 콘텐츠가 연계되면서 도민이 선택할 수 있는 문화·여가 콘텐츠의 폭이 커진다. 공연장과 전시관, 체육·관광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할인·우대 혜택이 확대되면 관광은 복지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관광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산업을 넘어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힘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분절된 행정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광역 관광정책을 추진하면 지역이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의 일상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제 광주·전남은 경쟁하는 이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세계 무대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사설

광주 서구 ‘착한 쿠폰’ 나눔·지역경제 활력

광주 서구가 ‘착한가게’ 확산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 지역 전체 착한가게의 절반 가량이 가까운 1639개가 서구 관내에 있는 것이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전북 익산시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착한가게’는 사랑의열매가 운영하는 나눔 캠페인으로, 매월 최소 3만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가게를 뜻하는 데 자영업자·중소기업·프랜차이즈·학원·병원 등 모든 업종이 참여할 수 있다. 가입 시 착한가게 인증 현판,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세제 혜택, 다양한 매체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고 한다.

광주 서구에 유독 ‘착한가게’가 몰려 있는 것은 ‘착한쿠폰’의 힘이 컸다.

이는 서구가 지난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기부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이를 지역 내 착한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즉, 자신의 기부금이 다시 지역 상점으로 돌아가는 복지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선순환형 복지 모델인 것이다.

실제로 서구는 지난 2024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2500명의 돌봄이웃을 대상으로 10만원권 쿠폰을 지급해 가맹점에서 사용토록 했고 지난해에도 수혜 대상을 3000명으로 확대해 3억원 규모의 쿠폰을 발행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올해도 사랑의 열매와 함께 3억5000만원 규모로 이를 지속 추진기로 했다.

기부자와 수혜자,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하는 이 쿠폰은 나눔이 일상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나름 신선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특히 양동전통시장 상인들이 앞다퉈 가입할 정도로 인기를 끌어 지난해 시장내 한 소상공인이 착한가게 5만호로 선정되는 이정표를 세웠다.

서구는 이를 계기로 양동전통시장을 ‘광주 제1호 착한거리’로 조성했고, 이제 그 곳은 지역 경제와 나눔복지가 함께 하는 상생의 중심지가 됐다.

특히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4년 ‘혁신사업 성과공유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착한쿠폰이 단순한 할인쿠폰을 넘어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착한 경제 플랫폼으로 정착하고 있다.

장성군 인구 1년 새 1000명 이상 증가 비결

광주라는 대도시 인근 그저 그런 농촌지역인 장성군의 ‘놀라운 변화’가 눈에 띈다.

고령층 증가와 유소년·청소년층 감소 등으로 인구 소멸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이 곳의 인구가 감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인구수는 4만4369명으로, 2024년 4만3253명 보다 1116명이나 늘었다.

또 여성이 가입기간(15~49세)에 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함께 출산율도 지난 2024년 1.34명을 기록하며 전국 시군구 중 4위에 올랐다. 당시 전국 평균은 0.75명이었다. 장성군 출생아 수는 2024년 202명에서 지난해 250명으로 1년 새 20%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는 장성군이 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등 주거 인프라를 개선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2021년 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 지정받은 장성군은 출산지원금 등 장기적인 인구 증가 정책을 도입하며 출산을 높이기에 올인했다.

먼저 출산이 가능한 젊은 층 유입을 위해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에 힘썼다. 대도시와의 주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심 신축 아파트 인하기를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장성읍에 793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고 현재까지 767세대 1776명이 전입해 주거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장성군에 위치한 첨단3지구 광주연구개발특구 주거단지에서 3729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어 이를 인구조로 환산할 경우 최소 8000명에서 최대 1만명까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인구 4만 3000여명의 이곳에 새로운 읍 하나가 더해지는 것이다.

이들이 정착할 수 있게 결혼·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한 것도 한몫했다.

최대 4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비롯해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출생기본수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지원책을 총출력 마련한 것이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정책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외국인 주민 증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큰 보탬이 됐다.

장성군이 일관되게 추진한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 잡힌 인구 정책이 빛나고 있는 시점이다.

취재수첩

광주·전남 통합…불이익 최소화 해법은?

김 귀 진

사회부 광양담당·이사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통합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는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시켰고, 전남도는 민관 합동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도민 공청회를 여는 등 통합을 위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27일에는 광양 커뮤니티센터에서 전남도와 전남연구원, 광양시가 공동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떠나 행정통합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지방자치 시대에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통합은 꼭 필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추진 방식이다. 지금까지 ‘변갯벌에 콩 볶아 먹듯’ 속도전에 치중한 통합 추진은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통합의 ‘이익’과 ‘불이익’을 단순 비교하며 찬반을 가르는 접근은 민주적 속의 과정과도 거리가 있다.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해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 기타큐슈시는 인구 100만 명 규모의 도시로 통합되기까지 무려 2년의 시간을 들였다. 와카마쓰, 도바타, 야하타, 고쿠라, 모지 등 5개 시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한 후에야 합병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사례가 야하타 지역이다. 야하타제철소로 인한 공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발생한 세금은 통합 이후에도 일정 기간 야하타에 사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타큐슈시는 이를 받아들여 야하타에서 나온 세금을 5년간 해당 지역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반대의 명분은 제도적으로 제거한 것이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역시 마찬가지다. 어느 한쪽의 희생이나 불이익을 전제로 한 통합은 갈등만 키울 뿐이다. 모두가 이익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 그래야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통합 시점을 한시적으로 2년 또는 4년 뒤로 미루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수 있다.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친 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역 상생의 길이다.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 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경 제 부 370-7020 사 회 부 370-7010 신 외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문 전 부 370-7082 사 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200 임 월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